



수협은행, 일류 해양수산전문은행 도약 선포

'OCEAN KOREA 21계획' 금융파트너 자임

2010년까지 해양금융부문 자산 2조원 목표

수협은행(은행장 장병구)이 수산전문은행에서 해운·항만 등 해양금융을 총괄하는 일류 해양수산 전문은행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다.

수협은행은 이같은 청사진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의 'OCEAN KOREA 21계획'의 금융파트너로서 역할을 알리기 위해 5월4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해양산업의 발전과 해양금융의 필요성'을 주제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과 김광원 국회 농림수산위원장이 참석해 수협은행의 새로운 비전선포를 기념하기 위해 축사를 했다. 또 장두찬 한국선주협회장, 박정원 한진해운 사장, 노정익 현대상선 사장 등 해운사 대표들과 이방주 현대산업개발 사장, 현대건설 이지송 사장 등 건설사 대표, 광영욱 대한통운 사장 등 해양 수산분야의 업계 대표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연구기관, 학계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장병구 은행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수협은행은 어민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수산정책금융 전담은행으로 성장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해운 항만 분야로 활동무대를 넓혀 우리나라가 21세기 동북

아 시대의 주역이 되는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행장은 이어 "이제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아 수협은행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해양수산 전문은행으로서 특화된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며, 이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는 수협은행의 당연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행사는 수협은행이 주인이며 해양부는 수협은행의 발전을 위해 심부름을 하는 날"이라며, 바다에서 번돈을 수협은행을 통해 바다에 재투자하자는 취지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오 장관은 또 "선박투자회사나 항만시설건설에 대한 민자유치 등에 수협자금을 사용하고 국제물류사업투자 및 2만달러 시대를 맞아 해양관련 레포트 수요 및 크루즈 산업발전에도 수협은행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 장관은 축사도중 즉석에서 수협은행의 자금을 이용함으로써 유리한 점을 얘기해달라고 장 행장에게 요청해 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에 장 행장은 "수협은 협동조합으로 출발해 회사의 이익이 회원과 고객들에게 환원되어지는 조직체"라며, 농어촌을 기반으로 발전해나감으로써 농어촌을 살기 좋게 만들고 동시에 간접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코자 한다고 화답했다.

수협은행은 오는 2010년까지 해양금융부문을 자산 2조원, 순이익 550억원의 사업부문으로 육성하



기 위한 장기비전을 수립하고 향후 항만건설의 민간 투자자로서의 역할과 해운선사에 대한 신조선 및 중고선의 선박금융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선박 투자회사의 금융지원 및 정부 SOC사업 및 부동산사업 분야에서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명실상부하게 해양수산 전문은행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협은행은 지난 1월 해양투자금융부를 발족해 해양기획팀, 선박금융팀, 투자금융팀 등으로 해양금융 전문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강명석 해양투자금융부장은 “수협은행의 해양금

융진출은 시장규모 및 성장가능성 대비 국내 상업금융분야에서 전문금융기관이 부재했다는 점, 향후 선박금융과 항만투자 사업 및 투자금융부분에서 관련 업계 회사들이 전문적인 금융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은행은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일류 해양수산은행’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지난해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로부터 A3 신용등급을 획득, 국내 금융기관 중 최고의 신용등급을 받았으며 1,04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창사이래 최고 실적을 거두었다.

ILO 통합해사협약 비준검토반 구성운영

해양부, 통합협약 채택 적극 대처키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21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예비기술해사총회 후속 중간 작업반 회의’에서 통합해사협약의 채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비준검토반을 구성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해사협약은 각 분야별로 채택돼 있는 낡고 중복된 37개의 해사관련 ILO 협약을 하나의 통합된 협약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해 9월 열린 예비기술해사총회의 미해결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핵심쟁점 사항이 대부분 타결됐다.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자국항만에 입항한 선박에 대한 점검범위에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을 포함하고, 선원불만 처리를 위해 항만운영 당국자가 초기 조사 및 세부점검을 실시한 후 선내에서 불만사

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국으로부터 시정 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게 했다.

또 협약 요건에 불합치하고 선원의 안전·건강 또는 보안에 명백한 위해가 있을 경우 출항정지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협약의 적용범위 및 발효 요건 등에 대해선 합의도출에 실패, 추후 해사총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68개국·노사·비정부기구에서 253명이 참가했다. 통합해사협약 채택을 위한 해사총회는 내년 2월 제네바 국제노동기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해양부는 이번 회의에 대표단을 보내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설명했다.